

## 타자를 이해하는 방법, 《젊은 모색 2025: 지금, 여기》 인터뷰

2025.07

《젊은 모색 2025: 지금, 여기》의 ‘타자로서 타자에게’는 섹션명처럼 타자를 중심으로 나를, 혹은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와 대상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전복시키고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면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결국 더욱 낯설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터뷰 3편에서는 무니페리, 김진희, 조한나A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보편이라는 환상, 그 균열에서 보이는 사소함에 대해서” 김진희 작가



김진희 작가

**Q. 기존 작업에서는 타인의 시선 속에 놓인 자신을 상정했다면, 신작에서는 집 안이나 발코니, 방 안의 책상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일상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변경되기도 했나요?**

이번 《젊은 모색 2025: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공간은 단순히 ‘사적 공간’이라기보다, 어쩌면 일상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종의 무대처럼 작용합니다.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거나, 담배불을 끄는 손짓, 물 한 잔을 마시는 동작처럼,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들이요. 그런 반복적이고 무게 없는 일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전 전시 《Drink Water》(2024)에서도 비슷한 감각을 다뤘습니다. 다만 그때는 마트나 버스정류장, 수영장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공의 장소를 골랐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를 설명하지도 않는 공간들이요. 그런 곳에 인물을 던

저 놓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둘러싼 외부 지표들이 정말 유의미한 것인지 한 번쯤 되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찰의 시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온전히 '나'의 공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묘사를 피하고 원통의 몸과 고전 회화의 구도 등을 차용해 오히려 보편적입니다. 여기가 특정인의 집이 아니라 그 누구의 집이라도 괜찮다는 방식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종종 '보편'이라는 말이 가진 애매함을 생각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보이지만, 정작 그 보편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적인 공간조차,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기준이 덧씌워진 익숙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가가기 어려운 풍경, 익명성을 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조. 저는 화면에 극적인 색감과 구도를 통해,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의 언저리에 작은 긴장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관람객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유도하려 하진 않아요. 다만 어딘가 익숙한데 낯설고 잘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 그런 어긋남의 틈에서 각자가 자신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진희, 〈바라보는 일〉(2025), 캔버스에 아크릴릭 물감, 180×150cm

**Q.** 익숙한 듯하지만 모호한 캐릭터의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는 회화 작품을 제작해 오셨는데, 이렇게 인물을 묘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신작에서 인물과 사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 그림에서 인물은 특정한 성별이나 인종 같은 외형적 단서를 삭제한 채 등장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편성이 얼마나 환상에 가깝고 균열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리는 인물들은 관람자들에게 일종의 거울처럼 작용해 누군가에겐 그 인물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조형화된 인체로 인해 누군가에겐 계속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없는 것들>(2025)에서 서랍을 열고 있는 인물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맥락이나 목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손에는 작은 쿠키 하나를 들고 있죠. 특별한 상징이라기 보다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 예전 작업에서도 서랍을 여는 인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랍 안을 끝내 그릴 수 없었어요. 서랍은 제게 중요하거나,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거든요. 혹여 그 안을 꺼내 보여주는 순간, '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오해될까 봐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쿠키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체로 화면 속에 남겨두고 싶어졌어요.

저는 인물과 사물을 통해 어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지는 않아요. 회화 안에서 그저 은근한 긴장을 품은 채 비슷한 질량으로 공존하길 바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장면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감정과 감각, 의미와 배경이 선명하게 나뉘지 않는 상태. 제 회화도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김진희 작가 전시 전경

사진: CJY ART STUDIO\_조준용

**Q. 이번 작업에서도 인물을 조명하는 빛의 활용이 돋보입니다. 빛을 통해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 작업에서 빛은 단순한 조명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장면을 구획하고, 리듬을 분할하고, 때로는 시선을 비껴가게 만들죠. 화면의 조형적 긴장과 서사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한 장치로 작동하는 식입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연극적인 조명을 많이 활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명이 꼭 인물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인물은 빛을 등지거나, 강한 역광 안에 놓이기도 하면서, 빛의 중심에서 약간씩 밀려난 상태로 그려지곤 했어요.

서사로 시작된 이미지가 빛을 통해 조형으로, 다시 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저는 가장 많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매 작업마다 유기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선보인 작업 중 하나인 <바라보는 일>(2025)에서는 건물 외벽의 타일을 표현한 그라데이션이 강하게 등장하는데,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인물과 함께 조형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주체로 작용합니다. 인물과 같은 색으로 처리된 타일은 때로는 반복적인 색면 패턴처럼 보이고, 때로는 빛에 의해 만들어진 명암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모호한 전환을 통해 조형의 리듬과 긴장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제 작업에서 실험적인 지점이 되곤 합니다.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뉴스레터 뮤클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mca2017&logNo=223917821392&navType=by&fbclid=PAZXhObgNhZWOCMTEAAafIDHLXAK0oNZWL78klKtCzryV0iJYOGGMf6ccFf1eMtgLB\\_KD2XXBazr7ErA\\_aem\\_wXkbhRNAbXhzYUPbJf2sIA](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mca2017&logNo=223917821392&navType=by&fbclid=PAZXhObgNhZWOCMTEAAafIDHLXAK0oNZWL78klKtCzryV0iJYOGGMf6ccFf1eMtgLB_KD2XXBazr7ErA_aem_wXkbhRNAbXhzYUPbJf2sIA)